

호매칼럼



조수웅 /前 전남문협 회장 문학박사

화엄종(華嚴宗)의 화엄경(원래 명칭은 '大放光佛華嚴經'이다)은 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설파한 경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放光佛華嚴經'에서 방광은 대승경전이란 접두어라면, 핵심어는 불화엄이다.

불화엄은 붓다의 공덕을 화사한 꽃다발에 비유한 것이다. 붓다의 존재를 특징한 지역, 시대에 태어난 역사적 붓다로 보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영원불멸의 이데아 존재처럼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붓다가 B.C. 5세기 인도에 나타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무수한 붓다는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만하고 황홀한 세계다. 그것은 백화가 만발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 해인삼매(海印三昧)에 들었을 때 비로자나불(우주에 충만한 빛)로 나타난다. 이렇게 붓다가 복수화 되니까 붓다불도 많아진다.

법신으로는 하나의 붓다인데 무수한 불로 나타나게 된다. 이 빛은 만물을 비추면서 일체를 포용해 원융의 세계를 만든다.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이다. 하나의 먼지 가운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비추는, 마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같은 법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세계, 윤투피아를 정토(淨土)라고 한다. 그래서 정토로 가는 게 불교의 꿈이다.

아제아제바라아제 "간다간다 나 는 간다~" 그 말은 도솔천에 간다는 얘기다. 화엄경은 초발심(初發心)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에 들어서는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는 법운지(法雲地)에 이르기까지 십지품(十地品)을 제시했으며, 이 생각은 형상화되어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구도여

화엄종(華嚴宗)

행으로 표현되었다. 절에 가면 기둥 사이에 열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게 깨달음 찾아가는 것인데, 흰 소를 만나 가게 그린 것이다.

화엄종은 법장이 세웠는데, 불타 발타라에 의해 60화엄이 한역되면서, 60화엄 판이 있고 또 80화엄 판이 있다. 화엄종의 기초가 마련되자 법장은 화엄경탐현기, 화엄오교장(원래 명칭은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教義分齊章)'이다.) 화엄경금사자장 등을 저술해서 화엄종의 토대를 놓았다.

법장 역시 지의처럼 기존 불교사상을 종합·체계화하는데 주력한다. 그래서 5교 10종으로 정리한다. 천태와 화엄이 대립했지만 종이 한 장 차이이다.

5교는 소승교, 대승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대승원교로 정리한다. 소승교는 구사종, 구사론, 아비달마, 소승불교를 뜻한다. 대승교는 현

상(현상)의 공을 설하는 유식사상이다. 일체의 공을 설하는 중관사상을 뜻한다. 그래서 유식사상 쪽으로 가게 법장종이다. 중관 쪽으로 간 게 삼론종이다.

대승종교는 능가경, 대승열반경, 대승기신론 등의 여러장사상을 뜻한다. 대승돈교는 유마경을 뜻한다. 주목할 것은 법장이 당대에 크게 펼쳐 있던 선종을 대승돈교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포함시켜는 경우가 많은데, 겉으로는 포용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폭력적인 것이다.

예컨대 종교에 5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는 4번째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포함시켜버리는 것이 된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자기 종교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는 5번째 선지자고 6번째 마지막 선지자가 무하마드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난데 내가 왜 너희 중에 하나냐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이슬람교의 전사(前史)다. 그런 논리가 무서운 논리다. 마친가지로 선불교를 전략적으로 자기네의 한 지류로 포함시켜 버리는 것이다.

대승원교는 화엄경을 뜻한다. 지의는 마지막에 법화경이 오게 하는데, 법장은 화엄경을 마지막에 놓는다.

결국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태종, 화엄종은 독자적인 사상체제로 보기보다는 인도에서 이루어진 사상들을 재료를 큰 틀을 짜서 배치시켜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법화경을 최종진리로 보면 천태종이고, 화엄경을 궁극진리로 보면 화엄종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하자

하루 종일 내리던 눈과 매서운 한파가 가슴을 부리고 있어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아 구급대원조차 현장 근무가 어려운 지경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에 1.6배 이상으로 빙판길 교통사고는 100건당 사망자 수가 3.21명으로 일반도로보다 치사율이 높다.

빙판길 제동거리는 평소의 8배로 시속 50km의 속도로 빙판길을 달리던 버스가 멈추려면 평소보다 약8배

를 더 가야한다. 화물차는 7배, 승용차는 4배 넘게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또 시속30km이상이면 차가 미끄러졌을 때 운전자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다.

빙판길 운전시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운행과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을 비롯해 대형 사고로 커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가 심하게 얼었을 땐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희영(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전기 안전수칙 준수 주택화재 예방해야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구와 전열기구 사용의 증가로 주택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올겨울의 날씨는 예년보다는 따뜻하지만 갑작스런 한파가 읍수도 있

으니 폭설, 추위에 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되면 난방기구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해 이에 대해 화재 예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해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둘째 난방기구 사용시 안전수칙을 지키자.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제품에 맞는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써 큰 사고를 막자.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열의 원인이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셋째 우리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장시간 소모되는 국물을 끓이는 등, 외출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 플러그를 꽂아 놓고 가지 않는다.

넷째 난로 주위에는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한다.

커튼이나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는 항상 소화기 모래등을 비치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화재예방을 신경쓴다면, 겨울도 아늑하게 따뜻하게 가족들과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채영섭(보성소방서 구조대)

겨울철 동상예방과 치료법 숙지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이나 발 등의 신체부위가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손발, 귀 등이 얼얼해지고 따끔하다 감각이 무뎠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오래되면 손끝이나 발끝 등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동상이 걸릴 수 있는데 심할 경우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 동상 예방법 및 동상 응급 처치법에 대해 잘 알아두도록 하자.

우선 동상 예방법으로는 옷은 여러겹으로 착용하고 몸에 붙는 옷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한다.

추운 곳에 있을 경우에는 움크리고 한 자세로 오래있지 않고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평소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장갑이나 귀마개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동상 초기 단계는 간지럽고 따끔거리다가 감각이 무뎠어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이럴 경우 손바닥을 비비거나 얼음이나 눈을 붙혀 마사지하면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동상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므로 절대 금한다.

동상 증상이 있는 부위가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젖은 옷과 신발을 벗고 마른 천으로 감싸서 따뜻한 실내로 이동 후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40~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녹여준 후 병원을 방문, 치료해 2차 감염을 예방하여 건강할 겨울을 보내자.

/배태섭(화순소방서 화순센터)

기사제보 E-mail : honamnews@hanmail.net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www.homae.co.kr

2009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최창 김현재 발행·편집인 고계방 편집국장 이용현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정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2-0008
임원실 (062) 363-8448 정경부 (062) 362-6116
총무국 (062) 362-6336 사회부 (062) 362-6226
논설실 (062) 363-0005 문체부 (062) 362-6116
광고국 (062) 363-0005 지역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사진부 (062) 362-6226
인쇄취재본부 (062) 943-0140 편집국(FAX) (062) 362-0078
구독료 만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실현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62)363-88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의견 TEL: (062)362-6226 FAX: (062)362-0078
광고문의 TEL: (062)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http://www.homae.co.kr
E-mail: honamnews@hanmail.net
지국안내
총무국 233-4123
충무동 224-4188
학동 234-4235
광천 225-0651
회정 374-3713
금호 376-7153
쌍촌 371-9584
상무 381-5310
서부 651-0004
송암 362-4102
농성 362-4102
진월 671-7276
봉선 675-5530
농성 362-4102
중암 521-5640
중흥 433-1503
양산 574-3745
운암 521-4270
오치 261-9461
문흥 261-9462
일곡 573-3200
풍운 525-8994
두암 266-1920
천단 971-1920
신창 955-0451
월곡 941-9174
송정리 010-5524-3638
지사안내
목포 (010)3631-9874
순천 (010)9656-1383
나주 (010)3644-7272
나주 (010)3644-1309
광양 (010)3157-0095
담양 (010)3602-3550
곡성 (010)3647-6161
구례 (010)8597-0053
보성 (010)3626-4776
화순 (010)3100-0386
장흥 (010)8665-5101
강진 (010)3775-2369
해남 (010)8668-2900
영암 (010)4604-3742
무안 (010)8020-9990
함평 (010)3610-9013
영광 (010)3609-2313
완도 (010)5066-4708
진도 (010)8525-4567
신안 (010)2996-6678
관산 (010)7613-4320
여수 (010)3621-3322
장성 (010)9999-5151
고흥 (010)9186-5252